

ISSUE REPORT

이슈리포트



2013. 02. 21
vol. 59

밤샘근무 사라진 지역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삶' 위한 준비 필요하다

박혜영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여성가족정책센터
hypark@udi.re.kr

CONTENTS

- 요약문
- 45년 만에 '폐지'되는 야간근무 03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부족하게 한 '야간근무' 06
- 지역근로자, 야간근무 폐지로 일상생활의 변화 '기대' 09
- 민간기업의 근로자 복지프로그램에서 답을 찾다 18

요약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오는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면서 45년만에 야간근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에게는 휴식과 재교육 등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높아질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과 자녀 상담, 교육 등에 직접적인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다 화목하고 조화로운 근로자들의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일부 대기업이 시행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Employment Assistance Program)'을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일과 가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이나 둘째 근로자의 생활습관을 개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셋째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발행인 하동원

발행처 울산발전연구원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TEL. 052-283-7700 FAX. 052-289-7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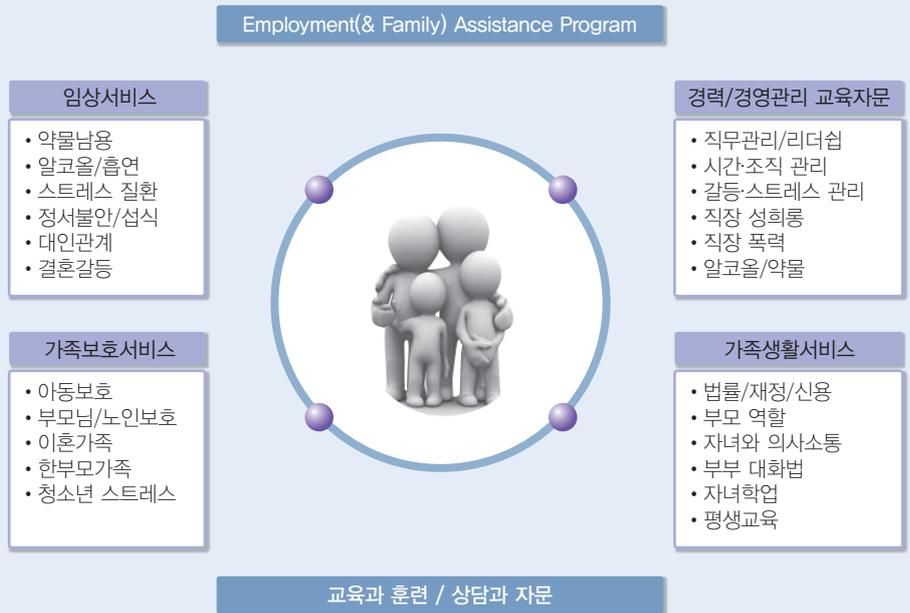
| 요약문 |
 밤샘근무 사라진 지역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삶' 위한
 준비 필요하다

대표적 사례로 '가족친화프로그램'은 가족의 건강이나 기본 생활정보제공은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등산 등과 같은 생활여가형 캠프운영, 학령기 자녀의 성장기 심리상태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 가정의 경제활동을 자녀가 체험할 수 있는 기업탐방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프로그램을 '근로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란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가족과의 여가활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적용하면 근로자와 가족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 및 친화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사회환원의 책무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산시 역시 추가 비용투입 없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수 있어 예산절감과 사회적 복지 서비스 수혜자 증가 등 지역의 복지범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모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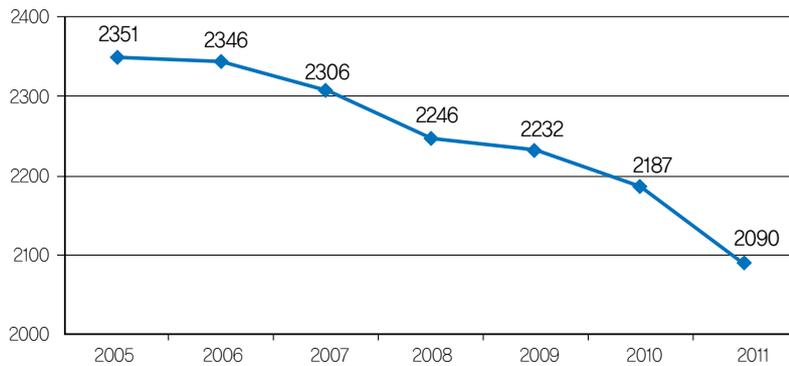


I 45년 만에 '폐지'되는 야간근무

① 한국인, 연평균 '2,090시간' 근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아

○ 2011년 현재 한국인은 한 해 평균 2,090시간 근로, 2005년 2,351시간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옴

[그림 1] 한국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변화(2005~2011)



*자료 : "Better Life Index"(2012), <http://www.oecd.org>

○ 그럼에도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1,776시간 보다 314시간 많으며 연간 2,250시간 근로하는 멕시코에 이어 다음으로 최장 근로 국가인 상태

[그림 2] OECD 국가별 연간 총 근로시간 비교(2011)



*자료 : "Better Life Index"(2012), <http://www.oecd.org>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과로사 사망자가 1,572명¹⁾이며 남성이 1,412명, 여성 162명. 연령별로는 40대가 603명, 50대 420명, 30대 265명, 60대 205명, 20대 53명

② 울산 후업계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감축에도 높은 수당 탓에 야근 ‘불가피’

- 서류업 자동차 업체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600시간 내외, 미국일본 자동차업체가 1,900~2,100시간 인데 비해 울산지역 자동차 업계 근로시간은 연간 2,500시간 내외
- 2004년 법에 따라 ‘주간 40시간 근로 의무화’로 노동시간이 점차 감소됨에도 정규근로 시간 외 통상 매일 2시간 잔업, 평일 연장근로시간 30시간 내외, 주 5일제 이후 주말특근이 실시되기도 함

[표 1] 울산지역 자동차업계 근로자 근로시간 변화 추이

(단위 : 시간, %)

연도	평일정규	비중	평일연장	비중	휴일	비중	전체
2001	148.0	72.1	29.4	14.3	27.8	13.5	205.2
2005	139.2	66.3	29.4	14.0	41.2	19.6	209.8
2008	141.7	70.8	27.2	13.6	31.2	15.6	200.1
2009	138.5	74.3	24.3	13.0	23.7	12.7	186.5

*자료 : 전인(2012)에서 재인용

- 자동차부품업체도 완성차업체와 마찬가지로 주야 맞교대 또는 2교대제, 각 교대조별 8시간 정규근무 시간 외 고정 2~3시간 잔업, 주말특근과 야간조는 일요일 저녁 출근이 유지되어 옴
- 장시간 근로, 야근 및 주말특근 등은 기본급과 통상급 비중이 40%에 못 미침으로 휴일잔업, 심야 수당 등 임금률이 높은 야특근 선호 분위기에 근거한다고 분석됨(전인, 2012)

[표 2] 생산직 시급제 조합원의 평균 임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고정급(월고정임금)				변동급		임금총액
	기본급	통상급	월할상여	월고정급	별도근무임금 기타임금		
금액(원)	1,570,186	1,818,466	1,278,609	3,097,075	1,229,284 1,096,679	5,424,859	
비율(%)	28.94%	33.52%	23.57%	57.09%	22.66% 20.25%	100%	

*자료 : 전인(2012)에서 재인용

1) 과로사 숫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해 유족급여나 장의비가 지급된 사망자에 국한
2) 전인(2012)은 해당 근로시간이 울산지역 H자동차 월 평균 노동시간 구성 추이로 소개하고 있음

-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후 2004년 4월 현대중공업은 주 40시간제 도입. 주 40시간 기준 통상 주당 20시간 초과 근로로 주 평균 60시간, 월 평균 240시간 근로해 옴

[표 3] 조선 대기업 시간외 수당 및 상여금 지급기준

(단위: 원, %)

구분	시간 외 수당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비중	
			2008	2009
현대중공업	통상임금÷240×실 O/T×1.5	지급기준×지급율+O/T 20HR	11.9%	
대우조선해양	통상임금÷243×실 O/T ×1.5	통상임금 × 지급율	11.1%	11.1%
현대삼호중공업	통상임금÷240×실 O/T ×1.5	기본급+통상수당+O/T 20HR	20.0%	15.9%
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240×실 O/T ×1.5	통상임금×지급율+O/T 20HR	10.5%	8.0%

*자료: 전인(2012)에서 재인용

- 조선업계는 주문자 생산방식, 다양한 기능과 형태가 요구되는 복잡한 선박건조 공정, 규모에 따른 상시적 기술 및 기능인력 확보 등의 특성으로 인해 주야 교대제는 거의 없는 반면 상시적인 근로시간 연장이나 일시적인 철야근무가 이어져 옴
- 지속적인 법 개정과 기업 내 조정을 기반으로 장시간 근로 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대부분의 가정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산업과 특근, 주말과 야간근무로 생활의 많은 시간을 작업장에서 보내왔음

II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부족하게 한
‘야간근무’

① 야간근무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야간근로와 건강³⁾

- 교대작업자는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물학적 생체리듬(circadian rhythm)의 혼란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변화에 적응해야하고 어느 정도의 건강상의 장애를 받게 됨

☛ 주간과 야간작업 1주일 주기 변경 교대작업자의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3년 울산시의 모 자동차 공장 생산직 근로자 508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측정 조사, “교대작업에 참여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군은 심혈관계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치, apolipoprotein B 와 Apo B/Apo/A-10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신재학 외, 1995)

☛ 울산지역 자동차공장 생산직 근로자 659명(야간작업자 544명, 주간작업자 115명)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교대작업자의 수면시간과 숙면정도, 식욕과 배변습관, 피로감과 졸음 정도 모두에서 생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한 높은 자각증상을 보인다”(이중정·정종학, 1995)

- 교대작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들은 교대작업이 식습관, 소화기계 궤양(1980년, Rutenfranz), 심혈관계질환 (1980년, Angersbach), 허혈성 심질환(1986년, Knutsson)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면 부족, 불안감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 작업능률의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 근로자의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1992년, Rosa & Colligan)
- 국내에서도 교대작업자의 소화기계 증상, 수면부족, 피로, 자각증상 등의 주관적인 호소율(신의철 외 1991), 야간작업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김창엽 외 1989)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음

3) 야간근로와 건강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신재학 외(1995)와 이중정·정종학(1995)의 연구보고서에서 발췌

② 주말과 휴일 근무가 일상화된 울산지역 근로자... 가족과의 소통저하로 이어져

○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시간 변화

- 2009년 생활시간조사 연구 분석에 따르면⁴⁾ 평일 낮 근무는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많으나, 밤에는 근로시간 추세가 역전. 이는 생산직 연장근무(잔업)와 교대근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시간 격차는 주말에 더욱 커져 토요일 기준 사무직이 오전 약 30%, 오후 20% 미만을 근로하는 반면 생산직은 오전 50% 이상, 오후 약 40%를 근로함
- 울산 근로자 시간 패턴은 전국 생산직 근로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여 토요일 오전 60% 이상, 오후 50% 이상 근로. 전국 생산직 근로자보다 각각 10% 높음. 사무직 대비 오전 오후 모두 30% 이상 높고, 일요일 울산 생산직 근로자 3명 중 1명 근로. 주말 노동은 '특근'이 아닌 '일상' 수준에 이름

○ 일상적인 생활시간과 다른 패턴의 근로시간대는 근로자 개인 여가시간은 물론, 가족과의 일상적인 생활시간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며, 가족 간 단절과 가장의 부재, 비가시성(invisibility)으로 이어져 옴

-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인 근로자 개인의 정서와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안정적인 교감과 가족 간 소통 가능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

☞ 함께 사는 기러기 가족, 가족생활시간 변화

"야근을 마친 아버지가 편히 잠자리에 들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은 휴일 오전에도 조용히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발소리를 크게 내거나, 문을 세게 닫지도 못한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근무시간 리듬에 따라 가족의 생활 시간도 변하는 거지요."(이대호, 33세, 4조 3교대)

"가족이 평일 날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힘들지요. 그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느정도 되었지만, 중학교를 가고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8시에서 9시 즈음이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간 다음이죠. 저녁 7시경에 출근할 때까지 집사람이 함께 있으면 모를까... 아이들은 학원에 있으니 보기가 어렵지요."(류현진, 42세, 2조2교대)

"주간 때는 그래도...아이들 얼굴을 한 번씩은 볼 수 있지만, 야간에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철야로 못 만나고, 일요일 어쩌다 한 번씩 저녁 외식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양준혁, 51세, 2조2교대)

"한달에 100시간 이상 특근을 합니다. 그냥 임금이 높은 게 아니죠. 그래야 애들 학원비 보태고, 노년준비도 하지요. 가능한 만큼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벌어야하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지만, 그냥 대기업이라 임금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송진우, 만 35세, 4조 3교대)

4) 안정옥(2010)은 2009년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울산과 대도시 평균 노동시간을 분석한 바 있음(가구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 수는 7대 도시 사무직 28,016명, 생산직 23,990명, 울산 생산직 1,456명)

③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본격화 예고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013년 3월부터 주야 2교대제 폐지로 45년 만에 야간근로제 사라지게 됨
 - 총 근로시간 3시간 감소, 시간당 생산대수(UPH, Unit per Hour)를 높이고, 조회, 안전교육 등 기존 비 가동시간 일부를 작업시간으로 조정, 생산능력을 유지하기로 합의
 - 현 평일근무(10+10) 기준 생산량 유지를 전제로 심야근무 7시간에서 3,17시간으로 줄면서 생기는 임금손실을 막기 위해 심야할증 및 야간정취 근무 임금 총액을 통상급으로 모두 보전해주시기로 합의함
 - 2005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최초 합의, 2008년 임금협상을 통해 현행 평일근무(주, 야간조 10+10시간 근무) 기준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 임금보전을 포함한 8+9시간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행 합의
- 전체 근로자 약 3만 5,000명, 하청업체 및 근로자 가족포함 지역 인구 약 10만 명의 경제생활 터전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주야2교대(1조 08시~18시 50분, 2조 21시~08시, 주야 2시간 잔업포함) 폐지, 주간연속 2교대(1조 8시간, 06시 40분 ~ 15시 20분, 2조 9시간, 15시 20분~01시 10분, 잔업 1시간 포함)로 변경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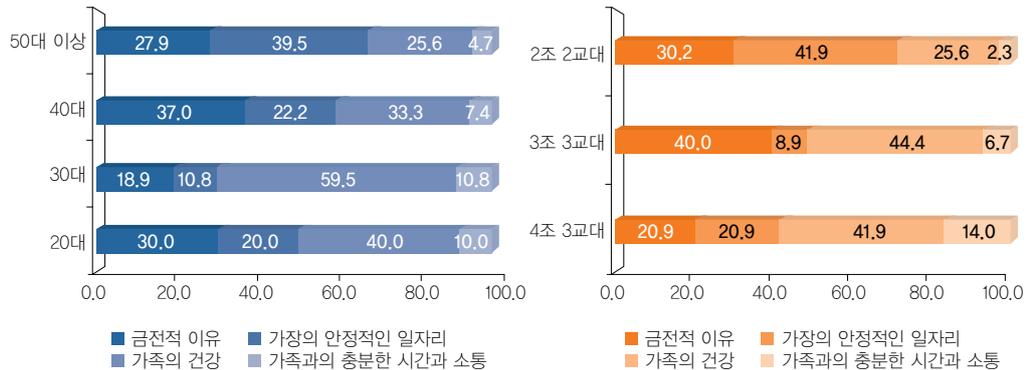
III

지역 근로자, 야간근무 폐지로 일상생활의 변화 '기대'

① 울산지역 근로자, '밤샘근무'에 대한 불만족 높아... 야간근무 폐지 시 생활환경변화 '기대'

- 울산발전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대기업 근로자가 생각하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중요 조건'으로 20·30대는 '가족건강'을, 40대는 '금전적 여유', 50대는 '가장의 안정적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들의 근로유형에 따른 응답현황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을 중요시하는 응답군은 4조 3교대 군, '금전적 여유'는 3조 3교대 군, '가장의 안정적 일자리'는 2조 2교대 근로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울산 대기업 근로자 연령, 근로시간제 별 근로유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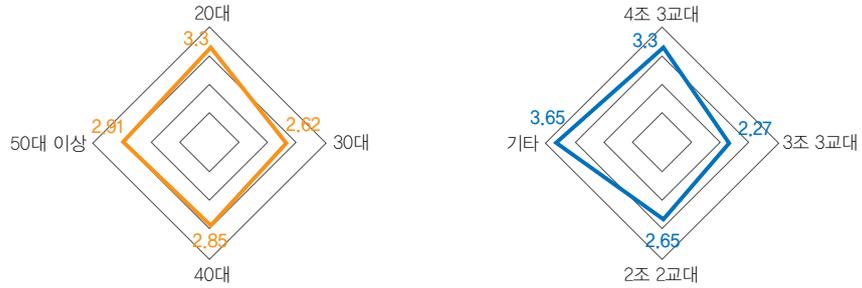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6) 지역 내, 자동차석유 및 화학조선 분야 대기업 근로자 15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함. 동 조사에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울산 시민의 근로유형에 따른 요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응답자 군을 근로시간제(예, 2조2교대, 4조3교대)로 나누어 표현하였음

- 근로 만족도는 연령별로 20대가, 근로 유형별로는 4조 3교대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울산 대기업 근로자 연령, 근로시간제별 근로유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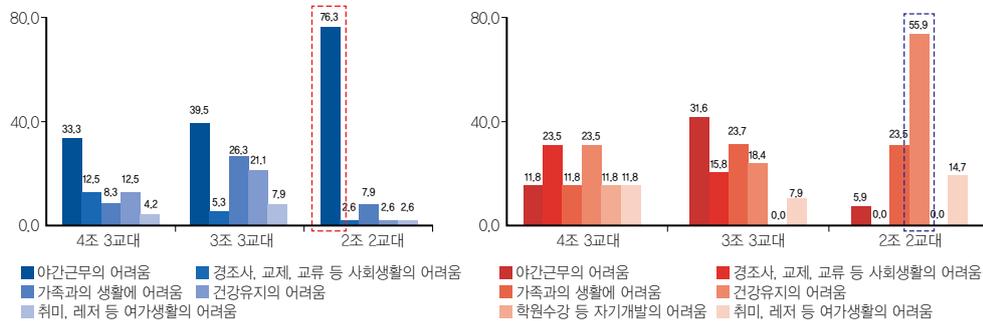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 전체적으로 '야간근로'를 가장 주요한 불만족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근로자 특성별로 세부 원인은 다소 다르게 나타남

- 특히 2조 2교대 근무자는 '야간 근로와 건강 유지의 어려움' 외 자기개발이나 가족 경조사를 챙길 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유형에서는 가족 관련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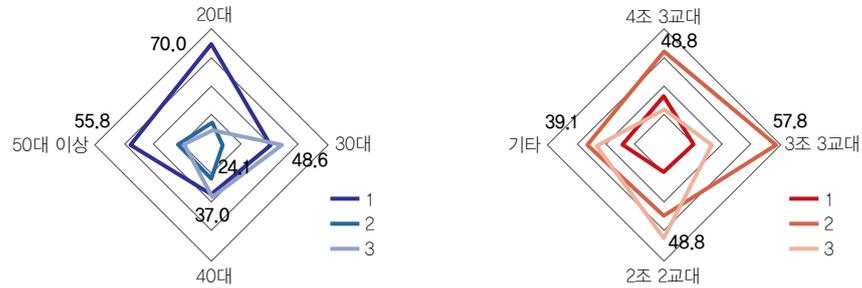
[그림 5] 울산 대기업 근로자 근로유형 불만족 주요 원인(1순위 : 좌, 2순위 : 우)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 20대 근로자의 70.0%, 50대 이상의 55.8%가 '지금과 같이 일하고 현재의 소득수준에 만족'하는 반면, 30대의 48.6%, 40대의 37.0%가 '지금보다 소득이 줄더라도 더 적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 유형별로는 3조 3교대제 근로자의 57.38%, 4조 3교대제 근로자의 48.38%가 현재 근로시간과 소득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조 2교대 근로자의 48.8%가 지금보다 더 적게 벌더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울산 대기업 근로자 근로시간과 소득수준에 대한 의견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 야간근로 폐지 등 근로시간과 교대근로 유형 변화로 인한 생활시간 변화 정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1점 : 전혀 아니다, 4점 : 매우 그렇다)
 - 전반적인 생활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2조 2교대 근로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개인생활과 가족과의 시간, 여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음

[표 4] 근로시간 및 유형 변화에 따른 생활 변화 의견

(단위 : 시간, %)

구분	근로시간과 생활시간 변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	여가활동의 증가	직업 외 소득활동 증가	소득감소로 생활곤란자 증가
4조 3교대	2,93	2,84	2,98	2,16	2,12
3조 3교대	3	2,93	2,82	2,11	2,38
2조 2교대	3,21	3,07	3,19	2,7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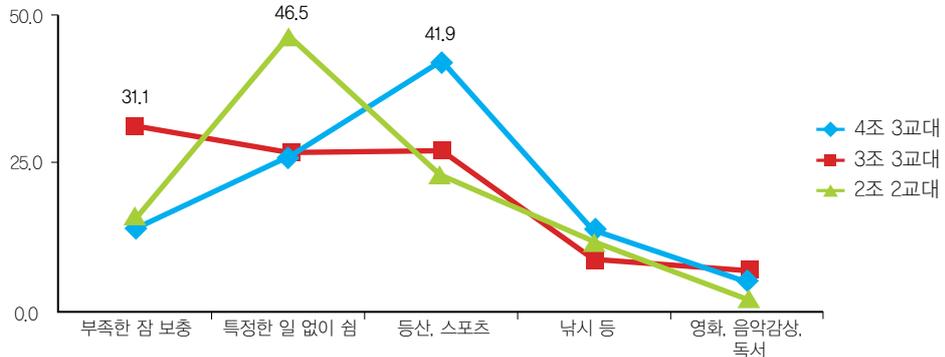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② 2조 2교대 근로자 46.5%, '부족한 잠 보충'으로 여가 시간 보내

○ 지역 대기업 근로자의 31.2%가 평일 또는 근로일 여가시간 '특정한 일 없이 쉬'

- 근로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2조 2교대 근로자들은 평일 특정한 일 없이 쉬는 경우가 46.5%인 반면, 4조 3교대 근로자의 41.9%는 '등산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울산 대기업 평일(근로일)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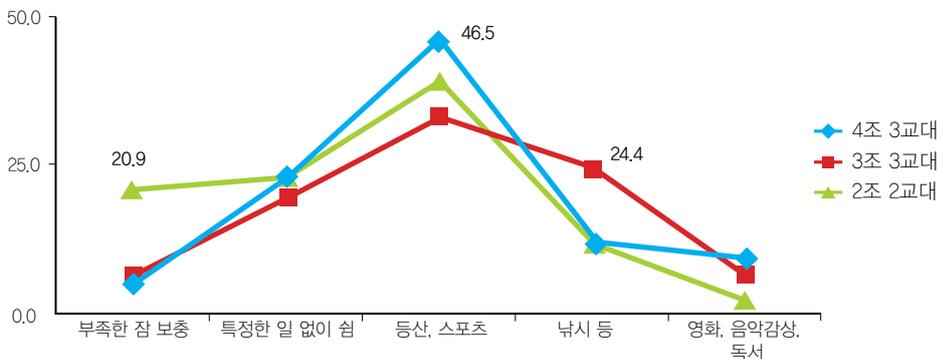


*자료: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 전체 응답자의 36.6%가 주말 및 휴무일 '등산이나 스포츠'를 즐기고 있음

- 근로 유형별로 휴일 여가생활은 큰 편차가 보이지 않는데 '낚시 등 레저'를 즐긴다는 응답이 3조 3교대 군에서 '부족한 잠 보충'은 2조 2교대가 가장 많았음

[그림 8] 울산 대기업 근로자 주말(휴무일)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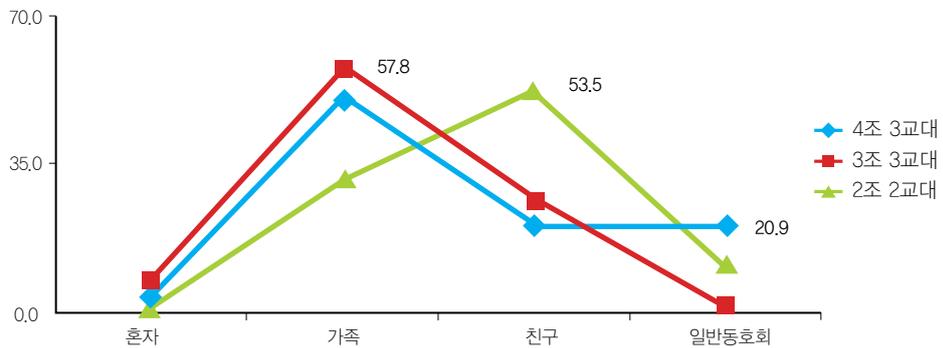


*자료: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 응답자의 48.1%가 주말 및 휴무일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으나

- 2조 2교대 근로자군은 주말 및 휴무일 여가시간 동반자로 53.5%가 '친구'와 함께 하며,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는 32.6%로 다른 근로유형 대비 20% 이상 차이가 남

[그림 9] 울산 대기업 근로자 주말(휴무일) 여가활동 동반자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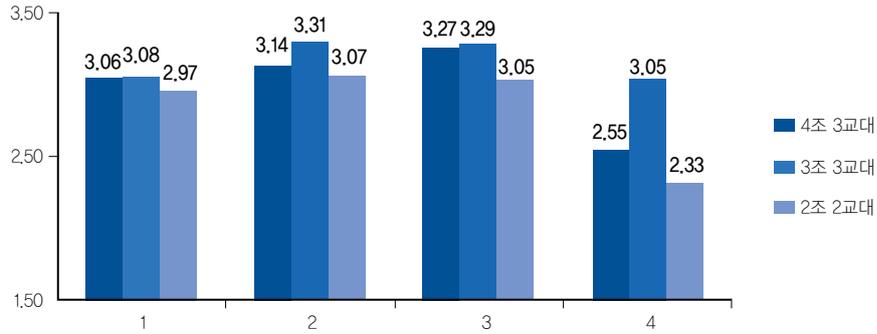
○ 대기업 근로 중인 응답자 51.3%는 여가시간이 더 생긴다면 '자기개발'을, 42.9%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자 함

- 연령별로 20대와 40대는 추가 여가시간에 '자기개발'을 선호하고, 30대는 '가족과의 시간'을 선호, 한편 50대 이상에서는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 근로 유형별로 2조 2교대는 '자기개발'시간을 선호하고, 4조 3교대는 '가족과의 시간'을, 3조 3교대는 두 가지 모두 유사한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와 가족과의 생활시간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는 근로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남

- 특히 2조 2교대 근로자군의 가족관계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가족과의 원활한 대화, 가족과의 생활시간의 편안함, 자녀와의 즐거운 놀이문화와 여가생활 등에 대한 자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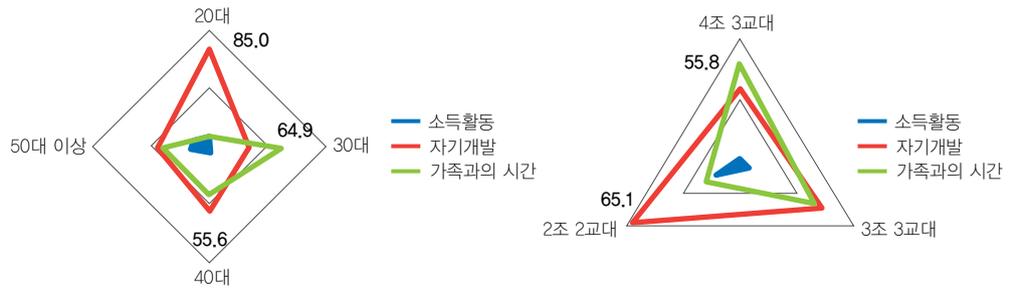
[그림 10] 근로 유형별 가족관계에 대한 자가평가



※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였을 때에 응답 평균을 점수화한 결과임

1. 배우자와 말이 잘 통한다.
2.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한다.
3.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편하다.
4. 쉬는 날 아이들과 즐겁게 보낸다.

[그림 11] 울산 대기업 근로자 여가시간 발생 시 희망 활동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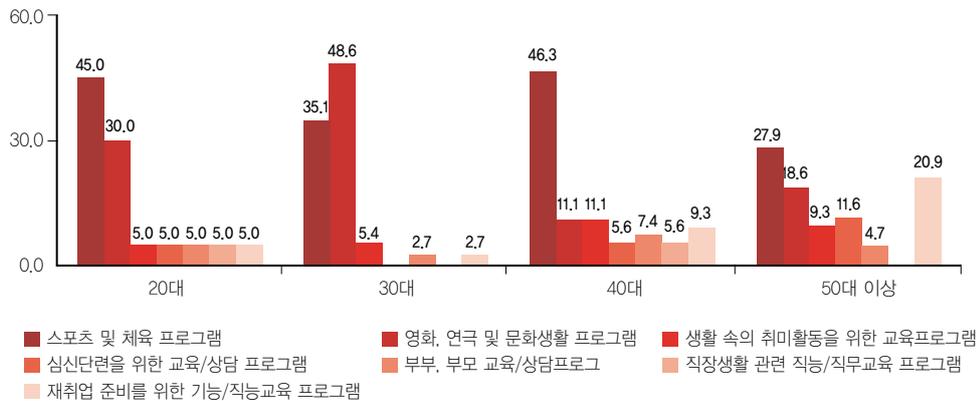
- 한편, 전체 154명의 응답자 중 9명(5.8%)만이 여유시간이 생기면 '소득활동'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소득활동의 주요한 이유는 '기존 가족 소비생활 유지'가 33.3%(3명), '대출인가 가계부채 정리', '자녀 교육 비용' 및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이 각각 22.2%(2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③ 지역 근로자가 희망하는 여가 프로그램, '스포츠·체육' 활동

○ 여가시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의 38.3%가 '스포츠 및 체육 프로그램'을 희망하였고, 24.7%가 '영화, 연극 및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10.4%가 '재취업 준비를 위한 기능/직능 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음

- 응답자들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스포츠 및 체육 프로그램'을, 30대는 '영화, 연극 및 문화 프로그램'을 50대는 상대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위한 직능 프로그램'(20.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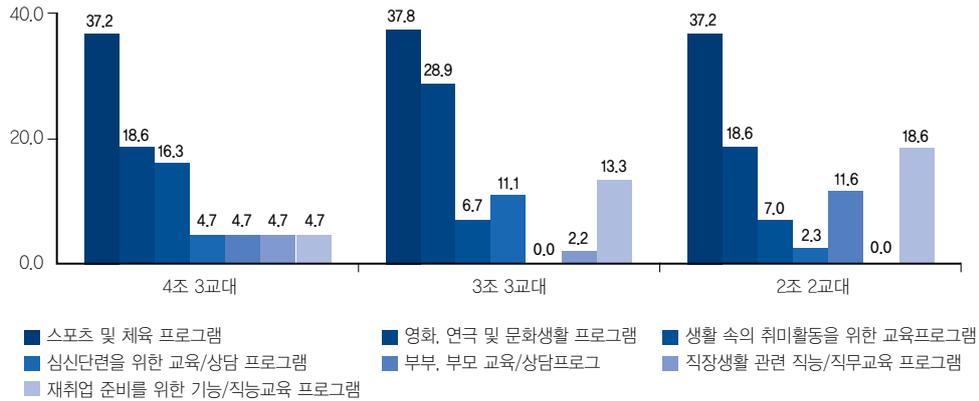
[그림 12] 여가시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 응답자들의 근로유형별로 필요한 여가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스포츠 및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4조 3교대 근로자들은 '생활 속의 취미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3조 3교대는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한 교육/상담'을, 2조 2교대는 '재취업 준비'와 '부부 및 부모 교육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울산 대기업 근로자 여가시간 발생 시 희망 활동



*자료 : 울산광역시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울산발전연구원

④ 야간근무 폐지로 가족과 함께하는 근로자의 '여유로운 삶' 위한 지원 이뤄져야

-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무 관행 개선으로 근로자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의 증진 기대에 대한 대응 필요
- 가족생활, 여가시간 증가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생활을 보내는 데 익숙한 근로자가장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가져옴. 이러한 변화가 가족관계를 운택하게 하고, 개인의 욕구와 재계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근로유형별 다른 요구, 야간근로 폐지 후 장단기 근로자 복지 지원 계획의 밑그림
 -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소득수준, 근로시간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로자들은 평일 여가시간 동안 스포츠 및 체육활동을 하는 정도가 많았으며, 휴무일 여가생활을 가족과 하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주야 2조 2교대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식이나 잠 보충을 많이 필요로 하며, 휴무일 가족보다는 친구와 생활하는 빈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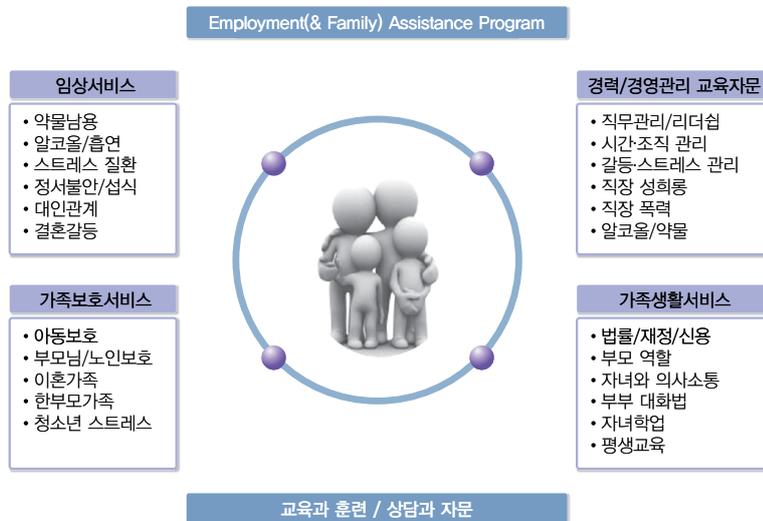
- 이러한 차이를 통해, 현재 주야 2조 2교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신체·심리적 피로감의 해소와 자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욕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발생하게 되는 가족과의 생활과 문화적인 요구의 순차적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점이 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젊은 20대와 일반적으로 자녀가 장성한 50대 이상 근로자군과 달리, 학령기 이내의 자녀를 두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30, 40대 근로자군의 가족생활에 대한 관심과 요구, 근로시간 개선 요구가 더 나타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여가생활과 가족친화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야간근로 폐지가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 근로자의 가족생활 개선과 근로자 가족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업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방향의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근로자 개인의 신체와 정신건강, 가족과의 관계와 가족생활의 다양하고 미세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의 부가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어야 함

IV 민간기업의 근로자 복지프로그램에서 답을 찾다

① 일부 기업에서 활용중인 '근로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 적용해야

- 야간근로 폐지는 근로자(가장)의 여가활동 증가와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근로 가장의 휴식과 재교육 등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또한 화목하고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위한 문화활동과 부모, 자녀 역할 배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기업형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근로자가족과 지역민 특성에 근거해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
 - 일부 외국계 대기업과 국내 우수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EAP(Employment Assistance Program)을 근로자·가족 지원 프로그램(EFAP : Employment & Family Assistance Program)으로 재구성. 확대 시도
 - ※ EAP 서비스 : 직간접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신체와 정서, 가족생활 및 개인의 경력, 경쟁력의 문제를 평가 진단하고 대응하는 직무조직 과정의 정책서비스와 절차

[그림 14] 근로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모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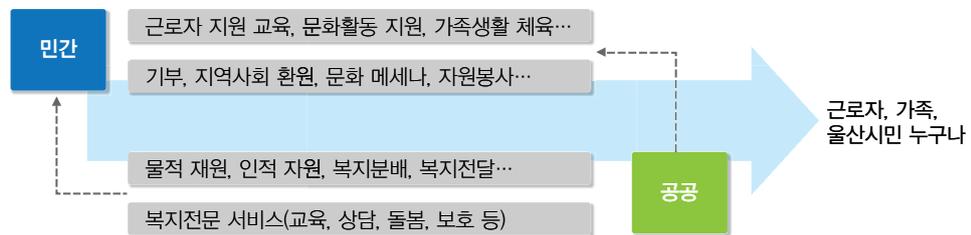
- 지역 가족지원기관, 보건소, 기업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와 교육기관의 공조로 지역 근로자와 가족 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②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편적 혜택' 나눠야

○ 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 기업 + 가족 및 공공 복지지원 기관 연계

- 대기업의 높은 편재로 시민들의 거주지와 생활공간은 근로현장 등을 중심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임. 이러한 특징은 민간(기업) 및 공공과 시민의 일상적인 접촉이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강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울산의 우수한 인프라로 꼽히는 공원, 체육 및 스포츠 시설과 주요 대기업의 근로자 및 가족 지원 시설·프로그램,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의 고른 지역적 편재는 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가 나아가 지역 가족과 구민 모두 함께 누리는 가족친화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음
- 개별기업에만 한정돼 이뤄지는 근로자 지원서비스는 가장이 근무로 인해 가족과 장시간 분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와 그 가족 모두를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에 물리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15] 민간과 공공 간 역할과 자원 연계 모형



- 이러한 한계는 기업별로 제공되는 근로자 프로그램의 일부를 그 가족과 울산시민 모두에게 공유·개방함으로써 극복 가능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상담·생활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지역 내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노인 복지시설, 상담기관 등과 연계는 시민 누구나 보다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 극복과 더불어 생활시간대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의 향유를 가능하게 할 것임

③ 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기업의 사회환원, '민-관 양방향 소통'으로 전환해야

- 기업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기부, 소외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문화 메세나 및 자원봉사 등의 인적·물적자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을 거쳐 요보호(要保護)복지에 주로 투입, 경제적 지원 또는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
 - 이는 주로 기업(물적·인적자원) → 공공 및 준공공 영역(봉사, 서비스 등) → 지역민(요보호 중심 생활/구제 지원)의 일방향성으로 진행
- 현재의 일방향형 기업-공공 간 지역 환원 시스템을 개선해 민-관 상호지지형 가족복지를 추구하는 선 순환적 복지 연계 체계 개선을 제안하며,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그림 16] 민-관 상호 지지형 가족복지체계 구축 모형



- 제안 모형은 현재 민간의 기부, 환원 및 자원봉사를 그대로 활용해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영역의 역할을 보충함으로 기업→공공→근로자 및 가족, 시민→기업으로 이어지는 상호 지지형 가족복지 시스템이 될 수 있음
- 민간의 재원과 인적자원이 가족복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만나 재가공 환원되면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공공영역의 전문성 모두 배가될 수 있음
- 또한 공공영역은 기업으로부터 기부, 환원받은 물적·인적 자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본연의 전문성을 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자원 및 재원의 재가공을 통한 지역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일방향형 기업-공공 간 기부, 복지 제공 시스템의 개선은
 - 울산광역시 추가 비용투입 없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적 서비스 수혜자를 늘리는 등 지역의 복지 범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이와 함께 기업은 사회적 환원이 자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울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성공적 모형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변화를 맞이하는 근로자로부터 그 가족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울산광역시' 조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이증정·정종학(1995). 「자동차공장 교대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평가」, 예방의학회지 제28권 제1회, 예방의학회
- 안정옥(2010). 「시간의 탈구와 일상의 비참 : 울산 자동차 노동자의 사례」 사회와역사 제 88집, 한국사회사학회
- 이성균·오승환·김양호(2008). 「울산지역 노동자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 개발」, 시민포럼
- 전 인(2012). 「제조업 노동시간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주(2012). 「울산지역 근로자들의 직장생활과 가정문화」, 2012년 울산학 연구 최종발표회 자료집, 울산발전연구원
- OECD(2012).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org>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UDI 이슈리포트 발간 목록

호수	제 목	연구자	발간일
58호	전통시장 살리기, 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에 답이 있다	이경우	'13.2.8
57호	울산발전연구원 2013년 10대 핵심연구과제	전 연구원	'13.1.25
56호	울산시민이 선정한 2012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전 연구원	'13.1.4
55호	'국제도시 울산'을 위한 도시브랜드 강화전략	권창기	'12.12.21
54호	유럽 재정위기 전개와 울산의 대응방향	황진호, 이주병	'12.12.7
53호	협력과 공생의 기업모델, '협동조합'에 지역경제의 미래가 있다	황진호	'12.10.26
52호	울산,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산업수도 경쟁력에 '안전'날개 달자!	임채현	'12.9.24
51호	'울산형 숙박시설 인증제'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자!	유영준	'12.9.12
50호	울산의 '랜드마크'태화루, 주변 경관개선 필요하다 - 태화루 건립에 따른 주변경관개선 방안 -	변일용	'12.8.31
49호	한-EU FTA 1년, 울산의 대외교역 - 울산지역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의 변화 -	강영훈	'12.8.23
48호	기후변화시대, 도시의 대응전략을 진단하다 - 7대 대도시의 기후변화 취약특성과 대응정책 비교 -	이상현	'12.8.9
47호	울산의 첫인상, '관문'에서 결정된다 - 관문지역 경관개선 방향 -	변일용	'12.7.12
46호	청약 '광역화'시대, 울산 주택정책 수요자 중심 변화 필요하다	이주영	'12.6.15
45호	울산, 교육·문화기능 조화로 시너지효과 창출하자 - 교육·문화 융합 '컨트를 타워' 구상안 -	이재호	'12.5.29
44호	울산,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황진호	'12.5.17
43호	'도시에 녹색 생명을 심자' -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의 과제	변일용	'12.4.27
42호	울산 가계부채 11조 시대, 위기관리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이은규	'12.4.16
41호	문화도시 울산 만들기 위해 문화지구를 도입하자!	권태목	'12.3.16
40호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 연구과제	김문연 외 10명	'12.2.27
39호	울산의 프로야구 경기 유치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김상우	'12.1.18
38호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본 지역산업용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권창기	'12.1.6
37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울산광역시 주택정책 방향	이주영	'11.8.5
36호	걷고 싶은 도시 울산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방안	김석택	'11.7.22
35호	울산광역시 재정 운영 방안 - 지방재정 제도를 중심으로 -	이재호	'11.6.24
34호	KTX 울산역 개통 주요 변화와 도시발전 방향	정현욱	'11.6.14
33호	최근 울산의 경제성장 정체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요성	김문연	'11.4.27
32호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 방안 - 울산광역시 시립도서관 역할 모색 -	박경희	'11.6.9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UDI 이슈리포트는 울산시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발굴, 분석한 정책보고서입니다. 본 연구에 수록된 내용은 울산광역시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DI 울산 Ulsan Development Institute 발전연구원

683-80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TEL. 052-283-7700 FAX. 052-289-7227
www.udi.re.kr